

뉴욕 록펠러센터 조각이 서울에 왔다

스위스 조각가 우고 론디노네 국제갤러리 'feelings'展

마치 영국 고대 유물 스톤헨지를 연상케 하는 돌조각 다섯 점이 서울에 왔다. 2013년 미국 뉴욕 맨해튼 록펠러센터 앞에 설치돼 뜨거운 조명을 받았던 조각의 연작이다. 스위스 브루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우고 론디노네(51) 작품이다. 전시가 열리는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K3 관에는 다리 두 개가 가로 돌을 떠받치고 있고 그 위에 몸통과 머리 모양의 돌이 올려져 있다. 돌조각 하나에 2.5t 무게를 자랑한다. 영락없이 스톤헨지 모습을 본뜬 인간 형상이다. "1980년에 스톤헨지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울타리가 쳐진 상태라서 직접 만지지는 못했지요. 록펠러센터 측에서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 스톤헨지 실제 크기대로 작품을 만들었지요. 서울에 온 작품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가장 유동적이고 도시적인 록펠러센터 앞 공간에서 론디노네의 인간 군상은 묘한 대조를 이루며 큰 관심을 끌었다. 현대적인 공간에 수천 년 시간을 견딘 고대 유물 느낌의 작품이 모호하지만 열린 자세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돌조각을 거닐며 무한성을 느꼈다.

서울에 온 조각 다섯 점도 언뜻 무표정하고 딱딱한 청색 돌조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볼수록 친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돌조각마다 재미

있는 이름을 붙여서일까. 작가는 돌 다섯 점 각각에 '참견쟁이' '변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순종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시명은 '감정(feelings)'이다.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정한 뒤 그 감정에 맞는 돌을 구한 다음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하지요. 가능하면 돌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돌조각 연작은 80여 점에 달한다. 2년 전 가장 처음으로 다룬 감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 없이 "행복"이라고 답했다.

심오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슬프지만 재미있는 상반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점이 독특하다. 어린아이가 만들었을 법한 순수한 느낌도 묻어난다. 그는 거주지인 뉴욕에서 흔히 흔한 청색 돌을 수집해 작업한다고 했다. 관람객들은 이 돌들을 직접 쓰다듬으며 교감할 수 있다. "저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계보를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풍경 앞에 고독한 인간을 그려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처럼 자연 앞에 수동적인 인간을 빛는 것이지요. 스톤헨지처럼 다시 뿌리로 돌아간 느낌, 원초적인 자연의 느낌도 제 작업의 배경이 됩니다."

그는 유독 '수동성'을 강조했다. 형태에 능동성을 부여하면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수동성이 좀더 열린 결말을 낳는다는 관점이다. 조각의 형상이 수동적일 때 관람객들로 하여금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관람객들은 각자 감정을 작품에 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다. 돌조각 외에도 전시장 바깥에는 올리브 나무 형상의 알루미늄 조각이 놓여 있다.

전시는 10월 11일까지.

(02) 735-8449

이향휘 기자



“스톤헨지에서 영감... 돌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2.5t짜리 대형 돌조각 5점·알루미늄 나무상 1점 전시